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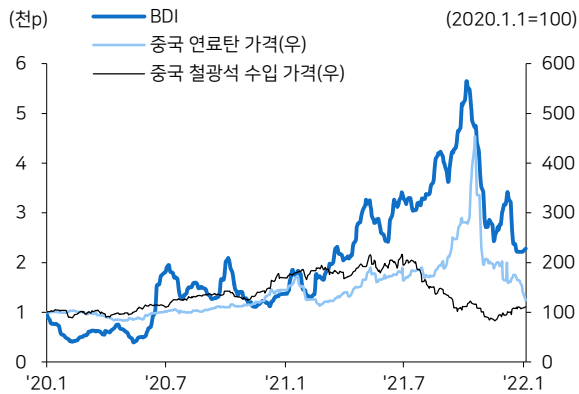
2022. 1. 5(수)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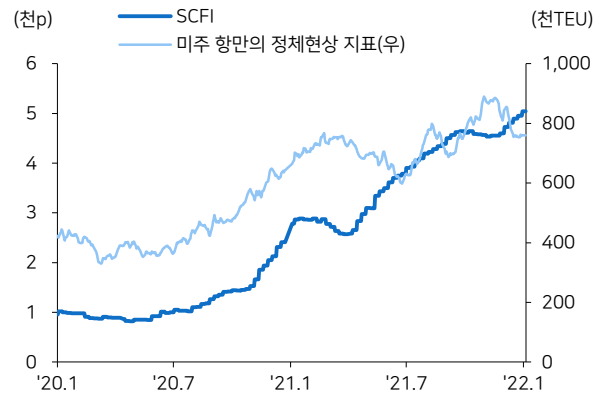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285.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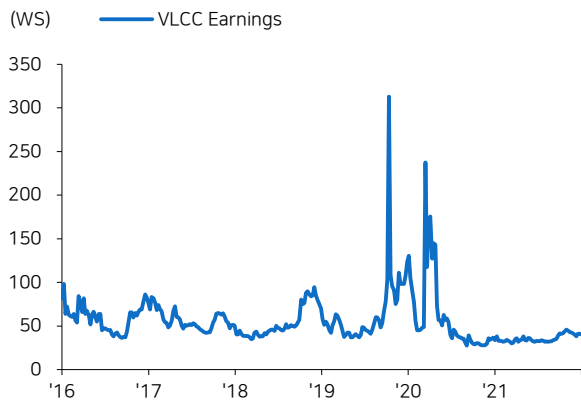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5,046.7p(+9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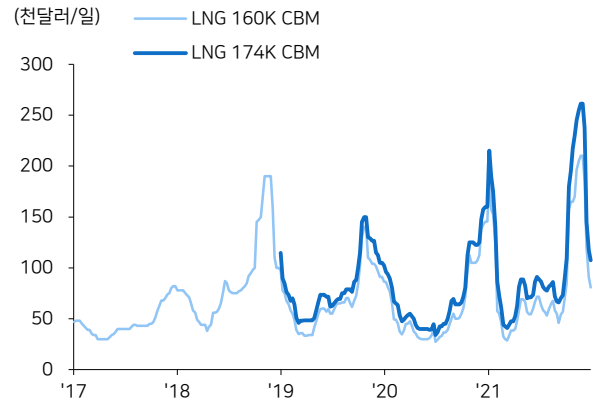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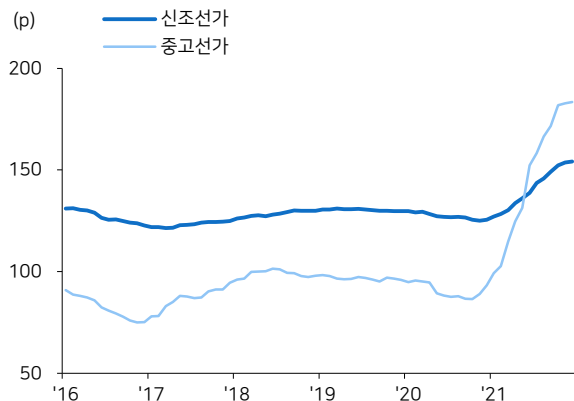
40.4p(-0.6p WoW)



LNG Spot 운임

80.8p(-10.5p WoW)  
107.5p(-1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4.2p(+0.1p WoW)  
183.0p(+0.0p WoW)

항공화물 처리량

334.9p(-2.0p DoD)  
98.8p(+1.8p DoD)

자료: Clarkson,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Hyundai yards start 2022 with newbuilding orders worth close to \$1.4bn

한국조선해양이 10척을 수주함. 현대삼호중공업이 174,000CBM급 LNG운반선 1척, 15,0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함. 컨테이너선의 선주는 MSC일 것으로 보도됨. 인도기함은 2024년 하반기임. 현대미포조선이 1,8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수주함. 인도기함은 23년 하반기임. (Tradewinds)

## NYK Line expands LNG fleet with two newbuildings at South Korean yards

삼성중공업이 지난 12월 27일 수주한 LNG운반선 2척의 선주는 일본 NYK선사로 보도됨. 계약규모는 2.02억달러이며 인도기함은 2024년임. 한편, NYK선사는 한국조선해양에 LNG운반선 1척 발주를 논의중인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HMM 공동관리 종료, 지분율 변화는 없어

HMM은 한국산업은행의 HMM 주식 등 보유비율이 71.68%에서 36.02%로 변경됐다고 4일 공시함. 변동 사유는 HMM 공동관리 종료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특별관계자 해지이며 두 기관의 HMM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도됨. (비즈니스포스트)

## 탱커시장 내년 중반에 변곡점

2022년에는 줄어든 비축량을 늘리기위한 석유수입의 증가, 노후선 해체 증가로 시황이 전년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도됨. 신조선 인도량도 향후 몇년간 2022년 인도량보다 줄어들며 2023, 24년에는 시황 강세 전환, COVID-19가 퇴치되는 2023년 중반, 2024년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 Agonising wait as more than 100 bulkers caught out in Indonesia's coal export ban

2021년말 발표된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제한 조치로 100척 이상의 벌크선이 항만대기 중임. 수요일(5일) 정부-석탄업계간 회의가 예정되어 조치 철회여부가 주목됨. 다음주 인도네시아에 벌크선 40여척도 도착하기로 되어있어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선박들이 남미, 인도양쪽에 몰려 특정 지역 운임이 폭락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카타르항공, 항공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

카타르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대금 정산소를 이용해 IATA 항공 탄소 거래소(ACE)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한 최초의 항공사가 되었다고 발표함. IATA 항공 탄소 거래소는 항공업계 내 규정 준수 및 자발적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으로 알려짐. (이데일리)